



# 아직도 계속되는 이야기, 박순녀 소설

함경남도 함흥출생. 원산여자 사범학교 졸업. 1945년 월남. 1950년 서울대 사범대학 영어과 졸업. 1960년 단편소설 〈케이스워카〉가 「조선일보」 신춘문에 기작 입선. 1962년 〈아이 러브 유〉 「사상계」 입선. 1964년 단편 〈외인촌 입구〉가 「사상계」 추천으로 데뷔. 서울중앙방송국 문예계(1955~58), 동명여고 교사(1956~59), 이후 작가생활에 전념. 1958년 소설가 김이석(金利錫)과 결혼. 소설 〈어떤 파리〉로 1970년 현대문학

사 신인문학상, 그 외 한국소설 문학상, 펜문학상 수상. 작품에 〈케이스 워카〉 〈외인촌 입구〉 〈임금님의 귀〉 〈蘭〉 〈아이 러브 유〉 〈어떤 바리〉 〈英語熱〉 〈로렐라이의 기억〉 〈스꿀까 장수〉 〈싸움의 날의 동포〉 〈검비 아내의 소녀〉 〈이웃돕기〉 〈생명안치소〉 〈별같은 아이〉 〈밤에서 밤으로〉 등 다수



**박순녀 작가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 수리산은 단풍의 붉은빛이 절정이었다. 가을 햇살은 수리산자락 아래 자리한 중앙도서관 문예창작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고 작가는 눈이 부신 듯 손가리개를 했다. 그곳은 인터뷰를 위해 처음 약속한 커피전문점보다 훨씬 아늑하고 조용했다. 군포의 문인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문예창작실이 펍 마음에 든다는 작가는 이곳 산본 신도시와의 인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8년 직장 생활하는 딸의 아이도 돌보아줄 겸, 아들 식구와 함께 산본으로 이사를 했다. 그로부터 십년이 훨씬 지난 지금, 정작 딸과 아들들은 이곳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작가는 수리산이 좋아서 떠날 수가 없다. 몇 년 전 어느 가을날, 유난히 빨간 단풍빛이 고와 서울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문인들을 초청했다. 혼자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였다. 그들 역시 수리산의 빛깔에 매혹되어 가을이 시작되면 연례행사처럼 이곳을 다녀가곤 했다. 작가께 근황을 여쭙더니 요즘 계속 눈물바람이라고 한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한달 여 동안 한국에 머물다 돌아왔다. 작가는 그 아들을 보내고나서 다른 때보다 유독 그림고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작가는 1928년 생, 그러니까 올해 여든 셋이다. 하지만 필자가 느끼기에 작가는 꽃꽂이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그 나이를 가능할 수 없었다. 내년에도 또 한 권의 작품집을 묶어낸다니 실로 놀라울 따름이고 작가의 창작 열의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해방 직후 월남하여 60년대 등단한** 박순녀 작가는 단편소설 <케이스 워카>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 1962년 <아이 러브 유>, 1964년 단편 <외인촌 입구>가 추천되어 데뷔. 방 송작가와 교사 생활을 거쳐 이후, 작가 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작가는 섬세한 여성의 정체성 자각을 바탕으로 지적인 문체를 구사하면서 당대 사회와 역사로 소설의 공간을 확대시킨 리얼리즘의 소설 세계를 지향했다. 기존의 많은 여성 작가들이 가족이나 애정 문제에 천착하는 상황에서 역사와 사회로 시각을 확대한 작가의 작품 세계는 월남과 주한 미군, 기지촌 문제를 다룬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2010년에 지식을 만드는 지식(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묶어낸 『박순녀 창작집』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인들에 대한 전시동원령 속에 숨 막혔던 일제 말의 공립 여 학교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기만적 이데올로기 공세가 펼쳐지는 <아이 러브 유>. 여학생들은 일본인 교장 네로의 강요에 잠시 현혹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고 적십자 간호원 지원을 거부한다.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 아마끼 선생은 여학생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 주는 인물이다. 그와는 반대로 일제 세력에 편승한 친일 조선인의 존재를 부각시켜 작가는 독자들에게 일본은 가해자이며 악이고, 조선은 피해자이며 선이라는 이분법의 시각을 뛰어넘어 새로운 성찰의 시선을 유도한다.

<외인촌 입구>는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와 하우스걸로 일하는 한국인을 통해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들추어내고 민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찬우와 김순배, 하우스걸로 취직한 영문과 여대생인 나는 한국인의 위에서 군림하는 미군 장교 커널 빌과의 관계에서 시대적 친미주의자와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민족주의자의 모습으로 대별된다. 커널 빌은 미국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주의를 가진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사적 이권에 탐욕을 부리는 타락한 미군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는 백인 여성이 한국인 김찬우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인이 백인 여성을 유혹했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오만한 인간상의 표상이다. 커널 빌은 하우스걸의 소지품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검사하고, 낯선 물건을 보고 해명도 듣지 않은 채 하우스보이와 하우스걸을 도둑으로 간주한다. 김순배는 커널 빌에게 절대 복종하고 김찬우는 자신을 도둑으로 모는 커널 빌을 정당한 결투를 통해 때려눕힌다. 그리고 미군에게 이부하는 김순배 역시 혼을 내준다. 작가는 김찬우의 당당한 행동을 통해 한미관계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면서 주체적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70년 현대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어떤 파리>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흑백 사고가 지배하는 경직된 우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의용군으로 끌려 나간 경력 때문에 주인공 홍재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획일적 국가주의에 의해 탄압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시인 김수영을 모델로 한 인물이라는 그는 끊임없이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사육이 어수선할 때마다 도피의 길에 오르는 자신을 '인간'이 아닌 '더러운 벌레'로 규정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파리는 프랑스 파리를 지칭하는 구체적 지명이면서 동시에 군사정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결



코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의미한다.

주한 미군 기지를 배경으로 한 <외인촌 입구>와는 달리 <엘리제 초>는 주한미군기지 부근에 있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카바레 '미시시피'. 이곳을 무대로 영배와 마담 미시시피, 양공주인 애리와 해련, 해련의 딸 혼혈아 엘리제, 브로커 장 등의 삶을 통해 작가는 기지촌과 혼혈아 문제, 한국전쟁의 상처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월남하는 피난민들의 비극적 참상을 통해 전쟁의 참혹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 미군의 부주의함을 비판하는 <싸움의 날의 동포>, 한국전쟁 중 월남한 젊은 여성 윤세가 공산 치하의 서울에서 어떻게 힘겹게 살아남았는지를 사실적 문체로 박진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귀향연습> 등은 공산 치하의 서울 시민의 절박한 모습과 월남민의 귀향 욕망을 차분하게 그려낸다.

**주체적 여성의 눈으로 당대 역사와 현실을** 정면으로 그려낸 작가의 현실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은 1970년대의 문학이 민족문학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남성애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쳐는 여성 인물들은 1990년대 페미니즘 소설을 낳게 한 모태가 되었다. 최정희, 손소희, 강신재, 임옥인, 박경리 작가등과 같은 시대를 호흡하며 작품 활동을 한 작가는 지금도 끊임없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올 8월에 '월간문학'에 발표한 <유섬언니>를 비롯하여 근래에 발표한 소설들을 책으로 묶어낼 준비를 하는 작가는 군포시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강의 중 '지역작가와 만남' 프로그램에서도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했

다.

"외국작가들은 수명이 매우 길죠. 나이가 들수록 더 치열하게 쓰고 작품세계 또한 깊어지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가 생각해 봤어요. 흔히 붓을 놔버린다는 말이 있지요. 문단의 조로현상은 우리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설은 체력이 달려서 그렇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를 곱씹어볼 수 있는 장르가 아닌가 합니다."

작가는 원고 청탁을 받으면 신문이나 TV, 책 등 일체의 할자매체를 차단한다고 한다. 창작에 몰입하기 위해서이다. 창작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활자로 된 것을 접하면 부지불식간에 작가의 작품 안으로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장인인식의 소설가다. 작가는 소설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수필, 여러 권의 번역서도 발간했다. 1950년 서울대 사범대 영문과를 졸업한 작가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1945년 단신으로 월남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학업에 대한 의지가 삼팔선을 다섯 번이나 넘게 했다. 이러한 월남 체험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외상으로 자리 잡았고 문학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 시절 작가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책이나 작가를 말씀해 주십사 했다. 작가는 오에 겐자부로에 '사육'을 들었다. 작가의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들어온 문학이론이나 세계문학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였다.

"오에 겐자부로의 문체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리는 듯 거칠면서도 단조로워서 읽는 이를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나는 당시에 파격이란 이런 것이구나, 했답니다. 모름지기 작가는 상투적이 아닌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독특한 문체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느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작가의 젊고 깨어있는 의식세계에 함께 빠져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께 요즘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나 황석영, 이문열, 이승우 작가 등이 해외 문학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쭙었다.

“물론 무척 반기운 일이지요. 우리 문학이 잘 번역되어 세계인들이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좀더 욕심을 낸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몇 개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아닌 본인의 창작품으로 오롯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어라는 것에 문화와 사상이 그대로 담기는 것인데 번역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 의미가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신만만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작가는 축적된 문화콘텐츠가 많아진 우리나라에서도 ‘나니아 연대기’나 ‘헤리포터’같은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이 나오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작가는 군포 문인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군포 문협이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거창하게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모토를 걸지 않아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것을 출판하면 역시 문화적인 콘텐츠가 풍부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모은 예술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 견인차 역할을 군포문협이 하는 것도 좋겠지요.”

작가의 모습은 곱고 단아하지만 모두에서 표현했듯 깨끗하고 강건한 함흥 여성의 기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작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故 김이석 작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순녀 작가는 1958년 <살비명>의 작가 김이석과 결혼했다. 열네 살의 차이가 나는 월남 작가인 그와 결혼을 한 것은 오로지 그가 <살비명>을 쓴 작가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년이 되던

1964년 9월, 김이석 작가는 글을 쓰던 책상 앞에서 쓰러졌고 그대로 영면하였다. 그로부터 어언 오십 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박순녀 작가는 혼자서 자식들을 키워 출가시키고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故 김이석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잠시 눈을 감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둘 다 월남한 사람들이라 이곳에 친척이나 지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그런 생각을 해볼 염두를 못냈지요. 2008년 10월에 남산 '문학의 집' 산림문학관에서 '소설가 故 김이석 문학의 밤'이 열렸어요. 문인들이 모여 고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남편의 생전 모습을 그리며 추모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 행사도 문학의 집 사무처장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나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남편인 김이석 작가한테 미안할 따름이지요.”

그래서였던가. 남편을 회고하는 작가의 눈가가 붉어지는 느낌이다. 자리를 옮겨 밖으로 나왔다. 중앙도서관에서 공내동에 있는 작가의 집까지는 도보 10분의 거리이다. 단풍의 붉은 빛은 늦은 오후의 사양에 운치를 더했고 길에는 은행잎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다. 바람이 불때마다 노랗고 붉은 잎이 살랑대며 내려온다.

**훗날에 어떤 작가로 기억** 되기를 바라는지, 작가의 작품세계가 어떻게 정립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내가 1998년에 낸 책 ‘기쁜 우리 젊은 날’ 에 보면 ‘만세교’ 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작품에 나오는 내 고향 성천강가에 ‘박순녀라는 이리이러한 사람이 소설가가 되어 돌아왔다’ 는 비



## 박순녀 작품집

아이 러브 유 / 외인촌 입구 / 엘리제 초 /  
싸움의 날의 동포 / 어떤 파리 / 귀향연습

박순녀 | 최강민

지공민노자서  
고전선집

석 하나 정도 세워지면 그것으로 족해요. 거창하게 작품세계니 뭐니 하는 것보다 늘 꿈속에 찾아가는 그곳의 벗들에게 내가 소설 쓰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리고 싶군요.”

성천강은 개마고원의 남쪽 끝 부전고원의 여러 산맥의 물들이 합쳐져서 함흥평야로 들어간다. 작가는 그 강가로 돌아가고픈 것이다. 작가는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책머리에 ‘50년이 넘게 가보지 못한 고향과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이 나에게서 제일 아픈 상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긴 세월을 두고 작가의 작품 속에서 한결같은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작품집은 1999년 제 15회 펜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가는 딸이 유학을 간 동안 맡아서 기른 외손녀 단비에게 주는 글 ‘단비엄마 바쁘대요’ (1992)라는 육아일기도 펴낸 적이 있다. 그 외손녀가 지금은 어엿한 숙녀가 되었고, 산본을 떠나 서울로 간 딸은 이화여대 교수로 재임 중이다. 혼자 계시기에 적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그럴 사이가 없다고 한다. 아직도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하고 가슴 속에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널려있는데 몸이 불편한 게 문제지 외롭거나 적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작가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이주홍, 오재봉, 송원희, 임신행 작가 등 여러 문인과 ‘갈숲’ 동인으로 활동했다. ‘갈숲’은 부산과 경남에 있는 작가들이 주축이었지만 박순녀 송원희 작가 등이 서울에서 내려가 합류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아주 오랜 세월 끊임 없이 이어져 오는 동인지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십여 년 휴간되었다가 올해 第 41호로 부활하였다. 작가가 주신 ‘갈숲’ 동인지를 읽으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경구를 새삼 떠올렸다.

10분이면 되는 길을 40분이 넘게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 문단의 어른인 작가의 문학세계를 들여다보는 행복감을 맛보았다. 언젠가 필자가 산본에 거주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 살고 계시는 박순녀 작가를 찾아 뵙고 문학적 배움을 넓히라고 했던 어느 소설가의 조언이 떠오르는 하루, 수리산의 가을빛은 저녁 어스름 속에 점점 짙어져 갔다.

대담 및 글 오은희



# 김동호 시인의 껍데기 經

지난 10월 8일 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23회 군포 시민의 날, 문화·예술·체육부문 시민대상을 수상한 김동호 시인을 찾아뵈었다. 김동호 시인은 수리산을 소재로 연작시 100여 편을 창작하고, 군포문인협회장, 수리샘 문학회 지도교수, 수리시낭송회 창립 및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학 활동 등을 통해 ‘책 읽는 군포’, ‘문화적 풍요로움이 넘치는 군포’ 만들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인은 특히 ‘책 읽는 군포’ 추진위원장으로 올해 군포시가 주요시책으로 제시한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도시 건설에 큰 역할을 했다.

“선생님, 다시 한 번 시민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수리산 태을봉이 바다로 보이는 시인의 서재 책꽂이 위에 발갈게 익어 연시가 되어가는 감서너 개가 놓여 있다. 얼마 전 고향 고산의 올레길 ‘산막이 옛길’을 다녀오면서 가지고 온 감이다. 무르익어 달짝지근한 속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시인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필자는 그것을 단숨에 호르르 먹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지난주에 산막이 옛길을 집사람과 다녀왔지요. 칠성면 외사리에서 시작하는 그 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고산댐을 둘러싸고 있어요. 사람들이 걷기에 아주 좋게 잘 다듬어져 있더군요.”

그곳은 시인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소풍을 간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6.25 피난 때 거쳐 간 길이기도 했다. 특히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잊지 못 한 일을 시인은 ‘아버지의 죽음’이란 시에서 들려준 적이 있다.



1934년 충북 고산 출생  
1957년 성균관대 영문과 졸업.  
197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성균관대 영문과 교수 역임

시집 『바다』 『꽃』 『피뢰침 숲 속에서』  
『詩山日記』 『老子の山』 『나는 네가 좋다』  
『한 쌍의 새가 날아간다』 『호호의 집』 『나의 뮤즈에게』  
『오현금』 『낙엽이 썩어 암실은 총천연색』

사진첩 속 사진이 퇴색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이 있다.

六 .二五 전쟁, 一四후퇴때빙판길 미끄러지며 미끄러지며 찾아간 첫 피난 마을

피난 간 빈집, 안방 차차하고  
쌀독이며 김치독이며 마구 하는 재미에  
전쟁도 잠시 잊은 듯 마냥 흥겹기까지 한 피난민들  
그 속에 우리도 끼여서 하룻밤을 잤지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이튿날 아침, 우리 소 우리 소가 없어진 것을, 우리 여섯 식구의 전 재산을 실은 우리 소

놀란 아버지 찾아나섰지만소는 이미 어떤 집 마당큰 가마솥에서  
끓고 있고소의 머리통, 버젓이 전승물처럼 걸어놓고

무법천지 음미하고 있는 그들 “이 소, 우리 소요” 채 입이 떨어지  
기도 전에 대 여섯 장정 우루루 몰려나와 “무슨 개수작이나” 며소  
주인도 소처럼 요절날 듯한아-그 험한 얼굴들

나는 그 때 보았다.아버지의 하얗게 질린 얼굴하얗다 못해 파아래  
진 안색

그 안색은 그 후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 하  
시고자조 자조 깨시던 아버지

의사들은 주사바늘 꽂으며 “신장염입니다. 만성 신장염입니다.”  
꽤나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만그들은 모른다.

그 후 십년 동안 굶다가 굶다가 가신우리 아버지의 정말 병명을 그  
들은 모른다.

『아버지의 죽음』 전문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건강과 참살이 열풍에 꽃힌 사람들이나 여행  
자들이 걷는 길로 탈바꿈했지만 시인에게는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길이기도 하다. 그 때 보았던 아버지의 절망과 비정한  
세상을 보며 열서너 살의 소년은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요즘 지자체에서 스토리가 있는 길을 문화상품으로 내 놓고 있다.  
길은 단순히 걷는 의미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자연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군포에도 그런 길이 있다. 바로 시인이 오르고  
있는 수리산길이다. 시인은 요즘도 여전히 수리산을 오르며 연작  
시를 쓰고 있다. <수리산 연작시>는 처음부터 의도하고 쓴 것은  
아니라고 한다. 1993년 서울에서 군포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 날  
마다 산에 오르며 시와 인생을 생각하다보니 꼬리가 길어진 것이  
라고. 수리산은 이제 시인에게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  
상이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문화  
도시로 군포는 수리산자락 안에 있어 마치 아버지 품에 있는 자  
식 같다. 수리산은 수리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고, 그들이 수  
리산의 주인이라는 것이 시인의 지론이다. 꽃과 나무, 곤충 등 자  
연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하게 사람을 사  
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인은 자연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종은 하늘에 심은 꽃이고  
꽃은 땅에 매단 종이다

봄의 꽃동산에서  
종소리를 들으면  
꽃의 무한을 종소리가  
전하고 있는 것 같다

높은 종루鐘樓에 올라 종을 치면  
꽃의 무한을 종소리가  
전하고 있는 것 같다

두 소리의 끝이 맞닿아  
아득히 하나 되는 자리

분명히 들리는 한 소리 있다  
‘꽃과 종鍾을 결혼케 하라’

『꽃과종』 전문

나무야 참나무야 굴참나무야, 산소를  
뱉어라. 꿀 방귀 나오도록 산소를 뱉어라.  
이곳은 천국, 동물의 똥을 식물이 먹고산다.  
식물의 똥을 동물이 맛있게 맛있게 먹고산다.

『꿀방귀』 전문



다람쥐의 겨울 창고를 가보았다  
 도토리 99개 개암 32개 밤 17개

이상하다  
 온 산이 제 것인데  
 왜 그렇게만 갖다 놓았을까

나갈으면  
 고소한 개암 300개  
 달콤한 밤 200개  
 쓰고 뚫은 도토리는 0개

그렇게 갖다 놓았을 것 같은데

『다람쥐의 겨울 창고』 전문

꽃과 종, 나무와 다람쥐에도 시의 답을 세우는 시인에게 외람되게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 를 여쭙는다.

“사재기나 유행할 때 호화로움을 추구하고, 이웃의 부러움이나  
 큰 차, 큰 집 등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환경파  
 괴, 기름고갈, 빈부격차, 인간성 파괴를 가져옵니다. 인간성이 비굴  
 해지고 교활하거나 거만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물음이 없고, 철학적 고뇌 없이 젊은이의 고뇌가 크기도 전에 이미  
 늙어버리고 있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가치에 대한 물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시인의 시집 ‘오현금’ 五絃琴(2008) 첫 장에 놓여진 『물음 연  
 가』에는 사람에게는 존재의 근원을 파는 보드라운 물음이 있다.  
 얼음이 녹아 물방울이 되는 모습도 물음표(? )의 형상을 하고 있고  
 슬픔이 녹아 눈물방울이 되는 모습도, 둥근 실타래에서 실이 막 풀  
 어지는 모습도 ?의 형상이다. 엄마 뱃속 생명의 근원인 태아조차 ?  
 자 모양으로 몸을 말고 있다. 구십 고개를 넘는 노인이 ?자 모양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 생과 死는 의문부호 투성이다. 시인은 인간의  
 존재 가치와 진정한 삶의 형식에 대해 ?로 사유思惟하며 골몰한다.

시인은 올 해 많은 일은 했다. 군포시에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책  
 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책읽는 군포’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시인은 그 중심에서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람과 도시를 변  
 화시키는 책 한 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역설하였다. 아파트  
 로 둘러싸인 신도시의 특성은 단절과 소외, 경쟁과 양극화 등 온갖  
 사회문제의 전시장 같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책을 읽  
 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을 빚어낸다면 그것은 유연함과 느슨함,  
 결을 내주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한다. 책이 사람들  
 만나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은 티가 금방 나지는 않지만 분명 공을  
 들일만한 일이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도

서선정 위원회가 군포의 책 성석제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  
 했다’ 를 선정하고, 릴레이 책읽기와 북페스티벌을 펼치면서 문  
 화적으로 한층 고양된 분위기가 된 것이 뿌듯하다는 시인의 말  
 씬에 필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건네는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 는 어느  
 철인哲人의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시인은 또 문화콘텐츠를  
 높이는 인문학강의와 지역작가와와의 만남에서 ‘시와 인생’ 에  
 대한 강연을 해 주었다. 그 결과 시에 결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게도 문학의 향취를 맛볼 수 있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가  
 스며들어 오는 걸 느끼게 했다. 저주의 땅도 詩로 개간하면 축복  
 의 땅이 된다는 말처럼, 여기저기서 책을 읽고 시를 짓는 수리산  
 자락 안의 신도시 ‘산본’ 이아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  
 어 하는 곳이지 않을까.

김동호 시인은 요즘 껍데기를 여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  
 다. ‘껍데기는 가라’ 고 외쳤던 신동엽 시인의 외침에 정면 대  
 응하는 모토이나 그 껍데기가 무엇인지 시인의 최근작을 보면 알  
 수 있다.

‘껍데기는 가라’  
 그 소리 여전히 기세 높지만

나, 요즘 찢 고구마  
 껍데기 채 먹으며  
 소화 비로소 잘 되고 있다

감, 껍질 채 먹으며  
 감기 귀신 쫓아내고 있다

사과, 껍질 채 먹으며  
 잃어버린 능금 맛 되찾고 있다.

白雪 분분 白髮 사이로  
 허준선생의 말씀 들을 때도 있다.  
 “껍데기 빼면 약 될 것 하나도 없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엔 돼지껍질 쫄득한 요리가  
 안심 등심 갈비 요리보다  
 더많은 사람을 받고 있다 한다

『껍데기經』 전문



‘그렇게 너무 번질번질하지 말라, 알맹이 대단히 여기지 말라. 모두 다 귀한 존재다.’ 라고 시인은 말한다.

“내가 고구마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됐는데 TV에서 어떤 사람이 껍질 그대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감도 껍질에 비타민 C가 많대요. 그래서 감기도 안 걸리고 사과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해봐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식물이나 먹는 것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요건 껍질이고 요건 알맹이고 그렇게 간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누구나 귀한 존재지. 발두렁에 누워있는 비틀어진 콩도 두부로 만들고 찌꺼기는 비지장까지 만들어 먹지요. 변비에 좋은 시래기도 버려진 무청을 겨우내 말려서 해 먹는 거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우리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영광된 날만 의미 있고 박수 받아야 하는 게 아니지요. 감이 서리를 맞아야 뭍은 기가 없어지고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순간 모두 소중한 겁니다.”

필자는 시인의 시집 오현금五絃琴(2008)의 시인의 말에서 귀한 아포리즘을 얻었다. ‘長은 짧고 短은 길어 모양 없는 장단이지만 五絃이 덩석 안아준다.’ 얼핏 보기에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시인은 ‘죽음은 본래 아름다운 것/낙엽처럼 따뜻한 것’ 『죽음은』 ‘겹겹의 산이/겹겹의 꽃잎이네/가장 큰 뒷산이/가장 작은 속잎이네’ 『겹겹의 산』 라고 노래함으로써 죽음과 삶, 큰산과 작은 꽃잎의 대립을 없애고 있다. 시인이 고구마와 감과 능금을 빌어 조용히 들려주시는 알맹이와 껍데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서로를 비춰주는 ‘영경靈鏡’ 이라는 시인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

“선생님은 갈수록 몸이 작아 드시는데 제 눈에는 왜 선생님이 점점 커 보이는 걸까요?”

라고 한 어느 문우의 말이 떠오른다. 시인은 ‘작은 거인’ 이다. 다음의 시를 보라.

해를 업고 기부좌를 틀면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 같다  
내 그림자 점점 커져  
마침내 나 사라지고 없다.

『해를 업고』 전문

대담 및 글 오은희

